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19년도 제4호

© Ismael Martínez Sánchez / ACN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지만,
한편으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무더위, 무서운 거리, 물웅덩이에 빠져버린 지프차,
계획에 없었던 항해, 사이공의 로켓포...
힘들었던 기억은 이제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사제들, 바위처럼 굳건한 신앙,
봉헌할 준비가 된 신학생들, 마더 데레사, 고마운 선교사들,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어린이들처럼
아름다운 것들은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베렌프리트 판 슈트라텐 신부, 1973년 선교일기 중)

발행: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편집: 위르겐 리민스키, 이재원 | 번역: 조원형 | 웹: www.churchinneed.or.kr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 전화: 02-796-6440 | 팩스: 02-796-6439 | 메일: info@churchinneed.or.kr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금 활동 중인 ACN 설립자 베렌프리트 신부

건축물은 정체성과 안전, 소속감 등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타는 모습을 하릴없이 바라보았을 때 경험했던 것이지요. 공허감에 젖은 것은 파리 시민들뿐만이 아닙니다. 서방 그리스도교의 상징인 노트르담을 재건하기 위해 기꺼이 기부한 사람들은 예기치 않게 극한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성당과 교회 시설이 화염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화마는 기술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증오와 불관용 그리고 과도한 민족주의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조국에서 삶을 이어 가며 성체를 함께 모시고 같이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한 사제와 수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ACN은 오늘날까지 수십 년 동안 성당, 신학교, 수도원 등을 건축하는 것을 지원해 왔습니다.

ACN이 이런 일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후원자 여러분께서 자비로운 도움을 주신 덕분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 일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를 간청합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우리는 가끔 "돈 이야기는 하지 말자"라거나 "이건 돈에 관한 건데"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돈을 악한 것으로 치부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교회 또한 운영이 어려워지고 맙니다. 사는 데도 돈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을 모금하거나 기부를 요청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조차도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돈을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마르 12,41-44 참조). 부자들은 대부분 돈을 많이 냈지만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렙톤 두 닢밖에 넣지 못했지요. 그것은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금을 제자들에게 복음의 계산법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활용하셨습니다. 자신의 생활비를 모두 봉헌한 과부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돈을 봉헌한 것입니다.

좋은 일을 위해 많은 것을 기부하는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자신에게 남는 것을 기부합니다. 타인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이도 있고, 양심의 가책을 달래고자 하는 이도 있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도와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오직 하느님의 눈으로만 사람들이 기부하는 것의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렙톤 두 닢'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을 원하시는지 보여 주십니다.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내어주고 스스로를 온전히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마르 8,35). 하느님께는 단지 헌신하는 것만을 헤아리십니다. 여기서 돈에 관련된 것은 이해타산의 논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성전 헌금함에 넣은 과부의 마지막 재산은 유다교 회당을 유지하고 건축하는 데 쓰였을 것입니다. 지난봄,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타자 세계적인 기업과 부자들이 재건 비용을 기탁했습니다. 억만장자들이 이 세계 유산을 위해 많은 기부금을 내고자 애썼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들의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상징과 문화유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집입니다. 하느님의 집이 없다면 화려한 성당도 옛 예루살렘 성전과 마찬가지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마르 13,2).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바로 하느님의 집을 우리가 봉헌하는 것을 통해 지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늘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성이 결핍되고 신앙이 힘을 잃어가는 한편 지적 교만이 생겨나고 재정도 부족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집을 만드는 데 투자해서 이 집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선물인 살아 있는 공동체를 가치 있게 한다면 그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당신 자신을 위해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성체로 내놓으셨습니다. 이 사랑의 성사는 우리 교회에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집과 교회 공동체에 얼마만큼 봉헌해야 할까요?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사람됨의 등대

ACN 직원을 만나 신축할 학교에 대해 설명하는 실릴 미이그베나 교장 신부

여러 교황과 성인들은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자기 마음부터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며 신앙의 진정한 터전 또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하느님은 없다.' 말하네."(시편 14,1)** 이처럼 하느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지혜는 삶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처럼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아프리카 **베냉** 코토누교구의 죄네스 보뇌르(Jeunesse Bonheur) 학교는 18세부터 30세 사이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묵상, 교육, 공동체, 선교 등을 주축으로 하는 1년짜리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죄네스 보네르는 프랑스의 다니엘 앙주 신부가 설립한 선교 학교 죄네스 뤼미에르(Jeunesse Lumière)를 모델로 설립되었습니다. 둘 다 프랑스어 이름으로, 죄네스 보뇌르는 '청년의 행복'을 뜻하며 죄네스 뤼미에르는 '청년의 빛'을 의미합니다. 죄네스 보뇌르는 아프리카에서 죄네스 뤼미에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한 최초의 학교입니다. 이곳을 다니는 청년들은 자기 세대에게 삶을 통해 하느님을 증거하는 예언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릴 미이그베나 교장 신부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인성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어서 그 부족함이 더욱더 아프게 느껴지는 덕목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웃음, 타인에 대한 존중, 시간 엄수, 잘한 일에 대한 사랑, 정의, 공동체에 대한 관념, 청결, 질서, 인내, 용서, 자존감 등 이를 배울 수 있는 곳은 바로 내면적인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학교입니다." 죄네스 보네르의 졸업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덕목들을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교적 삶을 통해 실천해야 합니다.

비센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은 코토누에서 1년간 학교에 다니고서 뚜렷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정신에 온 힘을 다해 오롯이 헌신한다면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학생인 파브리스는 선교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연과학에서 실험을 통해 이론의 정당성을 증명하듯 선교는 복음의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본질적 차원이 결핍된 것입니다."

이 증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죄네스 보뇌르 학교가 베냉에서 문을 연 지 3년이 되면서 12명의 신학생이 탄생했으며 수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이도 5명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베냉 가톨릭교회의 여러 교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죄네스 보네르도 물론 성장세입니다. 지금의 임대 중인 장소를 떠나 독립적인 공간과 학교 건물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말라위, 남수단, 부르키나파소, 말리, 코트디부아르 등지에서 온 학생들도 이곳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청년의 행복'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람됨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죄네스 보뇌르는 새 학교 건물을 세울 건설 부지를 이미 확보했으며 설계도까지 준비했지만, 공사 자금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ACN은 건물 신축 비용으로 6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죄네스 보뇌르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찍은 기념 사진

꿈이 현실이 된다면

“성주간에 노트르담이 불탔다. 하느님 없는 도시의 심장부에서 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탔을 때 한 잡지에 위와 같은 글이 실렸습니다. 이처럼 돌들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곳이 세계 유산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서아프리카 **세네갈** 남부 마르사숨의 생 제르맹 본당은 ‘말하는 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아직 작은 본당이지만 점차 성장 중인 곳입니다. 콜다교구장 장피에르 바센 주교는 생 제르맹 본당이 “이슬람권 지역에서 교회의 존재를 명확히 보여 주는 표징입니다.”라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03년 당시 이곳의 신자는 100명 정도였습니다. 작은 성당 안에 모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하게 활동하심으로 세례를 받는 이가 점점 더 늘어나고 토착 신앙을 믿었던 많은 사람이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자석 250석을 갖추고 첨탑과 대문을 세워 하느님의 집다운 모습의 새 성전을 짓기로 계획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2016년부터였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 벽을 쌓아 올렸지만, 건축비가 모자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자잿값과 운송비를 마련하는 데만 본당의 전 재산을 쓰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표징은 아직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ACN은 약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중앙아메리카 **온두라스** 북부 라 세이바에서 활동하는 프란치스코 수녀회도 비슷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수녀회가 운영하는 ‘하느님의 섭리 노인 요양원’ 안에 작은 경당을 짓는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30명의 사람들을 위한 경당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세이바교구장 미구엘 레니안 주교는 수녀들을 위한 피정의 집 또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노인들을 돌보는 것은 많은 힘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는 수녀들이 직접 길거리에서 데리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5명의 수녀들은 그 밖에도 청년 사목과 가정 사목, 교리교육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오직 사람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구급차와 의약품을 지원하고 친구나 지인들이 식품을 조달합니다. 수녀들은 겨우 생활필수품만 구매할 수 있는 형편이고, 경당 건축을 할 만한 돈은 아직 없습니다. **ACN은 요양원 옆에 수녀들의 피정을 위한 작은 집과 경당을 지을 수 있도록 약 2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그 어떤 꿈보다도 더 클 것입니다.

생 제르맹 본당을 방문한 바셀 주교와 ACN

하느님의 섭리 노인 요양원을 소개시켜 주는 칼들리리아 수녀

“행복합니다, 당신의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늘 당신을 찬양하리니.” (시편 84,5)

© HervéBossy / ACN

2004년 시성된 돈 루이지 오리오네

기술 훈련 워크숍에서 공부 중인 고아소년

"하느님과 사람들을 이어 줍니다." 로날도 신부가 교리와 기도를 지도하는 모습

"고통에 대해서만 묻습니다"

성 마더 테레사는 개인적으로 남긴 글에서 이렇게 술회했습니다. "한 신부님에게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끄는 친교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신부님이 하신 말씀은 '수녀님, 저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저는 그 외 다른 것에는 시간도 공간도 내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사제는 언제나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하느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인들의 신비입니다. 성인들은 언제나 하느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영적인 모습은 자비의 행위를 통해 완성됩니다. '하느님 섭리의 작은 사업' 수도회를 창설한 성 루이지 오리오네 신부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의 표현에 따르면 '자비의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하느님 섭리의 종'으로 여겼으며, 많은 질문을 하기보단 행동하기를 택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신자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그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만 묻자'였습니다. 성 루이지 오리오네는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보육원과 직업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젊은이들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칸반도 국가 **알바니아** 북부 슈코드라 교구 바르사이 지역에서 하느님 섭리의 작은 사업 수도회는 설립 정신에 따라 산기슭에 자리잡아 생활하는 수백 가구의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선교 센터를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신자들은 무신론을 내세우던 권력자의 앞잡이들을 피해 험한 산속에 은거해 있었으며, 엔베르 호자의 사회주의 독재정치가 종식되고 나서야 산 밑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깡마른 몸에 누더기를 걸친 이들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가슴속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4천 명 가까이 되는 신자들을 돈 로날도, 돈 도리안, 돈 주제페, 이 세 명의 수사들이 보살핍니다. 수사들은 사륜구동차 없이는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지역에 있는 4개의 선교 센터를 운영합니다. 수사들은 하루에 400km씩 운전하면서도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고 묵묵하게 행동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고 교리 공부에 대한 갈증을 풀어 주며 가난한 사람에게는 빵을 주고 기도를 갈망하는 사람과는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느님을 사람들에게로 또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이끌어 줍니다.

알바니아 인구 300만 명 중 60%가 무슬림입니다. 가톨릭 신자는 전체 인구의 10% 정도입니다. 이들은 수십 년에 걸친 무신론자들의 독재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 왔습니다. 젊은 시절에 인도로 간 성 마더 데레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알바니아의 가톨릭 신자들은 교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로날도 수사와 도리안 수사, 주제페 수사가 마을에 찾아오는 것을 반깁니다. 그런데 사실 수사들이 다니는 길은 제대로 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럴 때면 신자들은 수사들의 낡은 차가 고장 난 것은 아닌지 걱정하곤 합니다. 차가 없다면 수사들이 활동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신자가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ACN은 수사들이 새 사륜구동차를 장만할 수 있도록 1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에게 찾아온 작은 기적

"깊은 데로 저어 나가라(Duc in altum)!"(루카 5,4)
그리스도께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데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더욱이 불가능한 것은 전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때론 노력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북부 리살라 교구의 교리교사와 선교사들은 연락선 마니피캇호를 타고 콩고강 물줄기를 오르내리며 강 유역의 공동체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에 강풍이 불어 마치 복음 말씀의 겐네사렛 호수에서 그랬던 것처럼 파도에 배가 뒤집혔습니다. 몰아닥치는 폭풍에 배가 강기슭 나무까지 날아가 부딪혔고, 나뭇가지가 선체를 뚫어 구멍을 내는 바람에 배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니피캇호는 선체에 물이 가득 차 더는 운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에르네스트 응보코 응곰베 주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구조하고 배를 일차적으로 수리하는 데 교구의 자산을 모두 소비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날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도움의 손길입니다. 리살라 교구에는 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르네스트 주교가 ACN에 115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마니피캇호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사람 낚는 어부를 싣고 다시 콩고강을 다닐 것입니다.**

더 크신 하느님의 사랑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소명입니다.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중부 **부르키나파소**도 여기 '온 세상'에 포함됩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서부 도시 보보디울라소에는 자생적으로 설립된 '보보' 성모영보 수녀회가 있습니다. 보보는 보보디울라소를 가리키며, 이곳의 수녀들은 주로 성인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활동합니다.

보보디울라소 교구 관할 지역에는 '오로다라'라는 곳도 속하는데, 아무나 찾아가기 어려울 만큼 험준한 산마을이 대부분인 이곳에 약 12,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뿐인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조세핀 수녀

보보 성모영보 수녀회는 오로다라에서 청년 사목을 지원하고 환자와 노인들을 찾아갑니다. 수녀들은 현재 작은 오토바이 한 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레아 벨렘사가 수녀는 오토바이를 한 대 더 장만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두 배로 키워 보다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이 '두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260만 원이 필요합니다.** 오토바이를 한 대 더 들이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날개를 다는 격이 될 것입니다.

사목 활동을 위한 운송수단 지원

선교를 향한 마음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 북부 연안 도시 마탄사스의 병원에서 마리아의 종 수녀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평소 수녀들이 타고 이동하는 미니버스를 운전하던 기사가 급성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호천사들의 도움으로 운전사는 무사하지만, 버스가 여러 군데 손상을 입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수녀들은 한밤중에도 아픈 이들을 찾아가고 주말에는 노인과 환자들이 미니버스를 타야지만 미사에 참례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쿠바에는 자동차 보험이란 게 없어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수리 비용을 낼 수 없었던 수녀들을 위해 ACN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브루닐다 수녀는 이처럼 "놀라운 일이자 선교를 향한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의 결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해 왔습니다. ACN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수녀들은 눈앞에 닥친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가장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의 곁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립 및 재건 지원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말리는 서아프리카 사막 국가로 이슬람 테러의 그늘에서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성장하는 곳입니다. 수도 바마코 인근 도시 세베니코로에 있는 예수성심 성당은 본당 설정 20년을 맞은 곳입니다. 성전 내부는 신자석을 400석 정도 갖추고 있는데, 그보다 세 배는 더 많은 신자들이 주일 미사에 참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식, 장례식, 세례식 등 때마다 비좁은 성전 대신 야외에서 전례를 거행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ACN은 예수성심 성당의 신자석을 1,000석으로 확장하는 공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외에서 미사를 드리는 신자들의 모습

본당 공동체를 대표하여 자크 바지 신부가 대단히 기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 왔습니다. 또한, 이곳 신자들과 함께 ACN 후원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하느님께서 ACN의 활동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동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러 인종에 속하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지닌 세상 사람들을 어떤 풀 수 없는 끈이 하나로 묶어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풍부한 다양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영혼과 마음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공부는 그룹 토론, 심포지엄, 강좌, 세미나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라호르대교구 평화센터는 그리스도인과 무슬림 간의 대화를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도미니코회 소속인 제임스 채넌 센터장 신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알아가며 관용과 평화 공존의 문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카라치대교구장 조셉 쿠츠 추기경은 파키스탄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공존에 관한 대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가치를 찾기 위해 일함으로써 파키스탄 사회에 편견을 극복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파키스탄의 평화센터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종교 간 대화를 위한 3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공화국으로 인구의 1.8%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소수 집단인 파키스탄 그리스도인의 40%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며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차별과 신성모독 등을 날마다 겪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종교 간 대화는 그저 말만 화려한 행사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임스 신부가 ACN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여 약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로싱 대화 교육센터의 설립 목적은 "용서로 증오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용서만이 마음속에 화해가 자라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용서의 정신으로 만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리스도인, 유다인, 무슬림 등 100여 명의 각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로싱 센터의 2년짜리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에서 열리는 다양하고 강도 높은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분쟁 해결 전문가로서 구체적인 이웃 사랑을 증진하는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양성됩니다. 로싱 센터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 고안한 이 특별 프로그램은 총비용이 1억 2천만 원 가까이 되며 **ACN은 그중 약 6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화해는 우리의 임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워크숍이 진행되는 모습

'모두를 위한 평등한 가치'에 대해 발표하는
파키스탄 라호르대교구의 젊은 여성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제임스 신부

오랜 시간을 신실하게

복음의 가장 심오한 진리는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이러한 생각은 모든 선교 사명과 새로운 복음화의 출발점입니다. 동유럽, 특히 옛 소련 지역에서 이 기본적인 신앙의 진리가 다시금 새롭게 부각되어야 합니다.

벨라루스 서부 도시 흐로드나에서 헨리크 야블론스키 신부는 설립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본당을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과 함께 일구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직장과 학교가 있는 도시로 이주한 이들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이름을 딴 이 본당은 사제관이 딸린 큰 성전을 새로 건립 중에 있어 주일 미사는 주로 야외에서 봉헌하며 신자들의 가정집에서 교리교육을 하는 상황입니다. 헨리크 신부는 본당에서 10km 떨어진 아파트에서 살면서 날마다 병원을 찾아가 미사를 봉헌하고 환자들을 만납니다. 옆 본당의 일을 도우러 갈 때도 있으며, 이웃 나라인 폴란드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해 성전 건립 비용과 자동차 구매 비용 등을 모금합니다. 안타깝게도 모금액만으로는 모자란 실정입니다. 본당의 젊은 신자들은 대개 가난하며, 환자들은 어떻게든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복음화는 힘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ACN은 헨리크 신부에게 약 1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작은 자매회 수녀들은 청소년 교리 교육, 직장 사목, 어린이집과 양로원 방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정 등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곳 가정들이 처해 있는 큰 문제는 가족이 서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중 한 쪽이나 심지어 부모 모두가 외국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어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합니다. 수개월 이상 이렇게 떨어져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고 가족 간의 오해도 쌓이기 마련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사랑이란 오랜 시간을 신실하게 인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유혹을 견뎌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용서의 힘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말처럼 간단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곳 수녀들은 부부 피정을 통해 신자들이 용서의 힘을 갖게 하고자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108항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사랑을 보여 주고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부부 생활은 틀에 박힌 듯이 단순해서 낭만 없는 일상이자 익숙한 습관이 되어 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소통이 부족해지고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결여된 채 생활하게 되어 서로 함께 사는 것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피정을 통해 결혼 생활을 쇄신하고 용서하는 사랑을 북돋우며 아침 햇살 같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녀들이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여 ACN은 약 53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성전 준공 전까지 마당에서
미사를 봉헌해야 하는 헨리크 신부

피정을 통해 새 출발을 다짐하는
우크라이나의 부부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베렌프리트 신부님이 이렇게 말해 주신 것은 절대로 빈말이 아니였습니다. 저는 베렌프리트 신부님의 이 말을 떠올릴 때면 신부님이 우리 마을에서 저희와 함께하셨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베렌프리트 신부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임무를 하느님께서 늘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육신적인 고통을 덜어 주는 구호 단체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느님과 하느님의 약속을 알게 된다면, 영혼의 피난처를 찾고 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어야만 합니다. 신앙을 전파하는 사제와 수도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이 후원금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저는 12살 된 시프리앵이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ACN을 후원하고 계셔서 저도 같이 알게 되었어요. 저번 사순절에는 동생과 함께 돈을 모았어요.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이랑 폭력으로 아파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부터 먼저 기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힘내세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성인입니다

소식지 고맙습니다. 제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건 몇 년 전부터였어요. ACN 슬로바키아 지부가 생기고 여러분의 활동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접하게 되었죠. 저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고통받고 있는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형제자매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삶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제게 있어서 영웅이자 성인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탄압을 받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부디 하느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ACN의 활동은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을 믿지 않고 쉽게 비판하는 현실이지만, ACN은 교회가 늘 예수님과 함께하며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씨앗

후원자가 내는 모든 기부금은 비옥한 땅에 심는 사랑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ACN이 땅이라면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씨앗이 열매 맺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씨앗을 심읍시다. 보다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끔 말입니다.

친구들을 위해 매일 돈을 모았어요

이 돈은 이제 여섯 살 반 정도 된 제 아이 티모시가 모아 기부하는 것입니다. 티모시는 그동안 전등을 절약해서 키고 물도 아껴서 쓴다고 수도꼭지도 잘 틀지 않고 난방 온도도 낮게 하는 등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으려고 애썼어요.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마다 시리아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고 싶어졌어요."

한국 후원자 여러분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04537)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휴대폰 문자: 010-7475-6440

ACN 신임 한국지부장,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

ACN 전 한국지부장 요하네스 클라우자는 2014년부터 ACN 한국지부 설립 준비와 창립 이후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오다 2019년 상반기 활동을 끝으로 한국 생활을 마치고 고국 독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성서못자리의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가 ACN 한국지부장직을 이어 받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전임 지부장에 대한 격려의 박수와 신임 지부장에 대한 따뜻한 환영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ACN Korea)는 세계 곳곳의 고통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도우며 하느님의 사랑을 충실하게 전하겠습니다.

CPBC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열린세상 오늘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신부는 한국인 출신 첫 지부장으로서 2019년 7월 16일(화) 오후 5시 30분, cpbc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라디오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박기석 신부는 "박해받는 교회의 어두운 밤의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이 되어 주시기를 많은 교우 여러분들께 간절히 청합니다."라며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cpbc가톨릭평화방송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CN, 2019 '평화의 길' 상 수상

ACN은 지난 5월 뉴욕에서 2019년 평화의 길 상을 수상했습니다. 유엔 교황청 상임 옵서버이자 평화의 길 재단장인 베르나르디토 아우자 대주교는 "황무지에서 울부짖으며 도움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에 공명"하는 ACN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ACN이 격년으로 발행하는 〈박해받고 잊혀지다〉와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를 "그리스도교 혐오로 인한 피해 현황과 전 세계 196개국의 종교 자유 실태를 기술한 현존 최고의 보고서"라고 극찬했습니다. 평화의 길 상의 역대 수상자로는 주 시리아 교황대사 마리오 제나리 추기경, 룩셈부르크의 헨리 왕자, 스페인의 소피아 여왕 등이 있습니다. ACN 국제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은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억압받고, 차별받고, 침묵에 묻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밤 저의 목소리를 빌려, 이들의 순교가 좀 더 세상에 알려지길 희망합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ACN의 활동은 후원자 여러분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며 "여러분은 ACN이 짓는 다리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신앙과 희망, 이웃사랑의 다리를 놓아 박해받는 교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자비!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돕기 한국지부(ACN Korea)」의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온 세상이 세계화와 지구촌화되었다고 말하는 시대이지만 날마다 종교나 믿음을 근거로 저질러지는 사람을 겨냥한 폭력과 무관용 행위는 오히려 더 심각하기만 합니다. 2019년 들어서 뉴질랜드, 스리랑카, 남수단 등에서 폭탄테러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이에 국제연합(UN)은 8월 22일을 '국제 종교 폭력 희생자의 날'로 지정하여 너무나 쉽게 자주 잊혀지는 종교 희생자를 기리면서, 종교와 믿음의 자유야말로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이며 다른 많은 권리들의 주춧돌임을 호소하는 현실입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5,10)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선포와 더불어 여덟 가지의 행복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은 '박해받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고, 이에 더 구체적으로 누구와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들이 하늘 나라의 행복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마태5,11)

예수님과 그분에 대한 굳은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극심한 차별대우와 소중한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이들에게 하늘 나라의 행복이 이루어졌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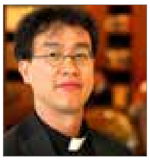
제2차 세계 대전 후 1947년,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제시한 화해의 호소에 응답하고자 네덜란드 출신의 한 젊은 사제가 과거 자신의 나라를 침공했으나 패전국이 되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독일의 가톨릭교회를 돕는 데서 「고통받는 교회돕기(Aid to the Church in Need, ACN)」는 시작되었습니다. "평화의 전사"라는 이름을 지닌 베렌프리트 판 슈트라텐 신부님은 돈을 기부할 형편이 되지는 않지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서 베이컨 등의 음식을 기부받았고, 그래서 심지어 '베이컨 신부'라는 별명까지 갖게 되셨습니다.

「고통받는 교회돕기 한국지부(ACN Korea)」의 지부장이라는 새 소임을 맡으면서 ACN 설립자이신 베렌프리트 신부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시험받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신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시험받습니다. 하지만 박해받지 않는 신자들은 그들이 간직한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시험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믿음을 간직한 우리들은 사랑을 지녔다는 것도 증명해야 합니다. 박해받는 교회의 어두운 밤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저희 「고통받는 교회돕기(ACN)」는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굳은 믿음을 간직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가톨릭 교회와 교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인도주의 차원의 다른 원조기구 및 단체와 달리, 고통받는 가톨릭교회를 돕는다는 분명한 목적과 대상을 지닌 교황청 재단으로서 매년 140여 개국에 성전 건립, 성직자 양성 및 생계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가톨릭 사목 원조 사업과 캠페인을 5,000개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적 견해나 신념에서 비롯된 무서운 폭력과 무관용 행위의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며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믿음을 증거합시다. 103위 순교 성인과 124위 순교 복자를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성장한 우리 교회입니다. 박해받은 교회에서 박해받는 교회에게로 나아가는 데 저희 「고통받는 교회돕기(ACN)」가 앞장서겠습니다. 부디 함께하여 주십시오.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2코린 5,14 참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그치시는 사랑이야말로 고통받는 교회의 신자들에겐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